

검찰-민주당 갈수록 '악화일로'

이인규 "박연차, 박지원·우윤근에 돈 줬다 진술" 박지원 "정치탄압 당 운영 걸고 투쟁...법적 대응"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청목회 로비 관련 압수 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이인규 전 대검총수부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작년 수사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6일 시사저널(17일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국회 법사위에 박연차로부터 돈 받은 현역 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 박지원 대표와 우윤근 의원"이라며 "박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신라호텔 2층 중식당에서 1만달러를 받았고, 우 의원이 받았던 돈은 2만달러 정도로 박 대표보다 많았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액수가 적은 편이어서 수사가 이뤄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수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지금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으로 국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목회를 필두로 개헌,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정치적 탄압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주당 박지원 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되는 전직 중수부장으로서 대단히 온건치 못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검총수 부장의 발언에 대해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전행 발언을 통해 "법조인이라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 합법·정의를 부르짖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불출석한 이유로 고발했다"고 이런 식으로 양갈음을 하나 해서 마음이 착잡했다"며 "일방적인 박연차 진술로 1만달러를 이야기하는 데 취중도 아니고 맹정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며 "감정적 이유로 발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허위 사실이지만 수사상 기밀을 누설해선 안

국회 '4대강·복지예산' 설전

與 "4대강 예산 사수" 野 "6조7000억 삭감"

국회는 16일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나, 최대 쟁점인 4대강과 복지 예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에서는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둘러싼 여야간 불꽃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자 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 중 70%에 달하는 6조7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활한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사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예산은 전부 수공

예산에 포함돼있어 국회 심의조차 받지않게 돼있다"며 "3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국가 예산도 아닌 수공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무작정 정략적 판단에 의한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경남도의 사업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경남도민을 무시한 일방적 사업권 회수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로 올해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여당에 의한 단독 처리 강행→야당 반발이란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보건복지위에서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 감축을 전제로 무상의료 7600억원, 노인복지 6000억원 등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조건 증액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충돌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에서는 민간인 검찰의 불법사찰 및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으며,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 수위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4대강·무상급식' 현장 드라이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를 고리로 현장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내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예산 투쟁을 하는데 발맞춰 원외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손 대표는 16일 충북도청을 방문, 무상급식 현황을 청취한 뒤 청주 산성초등학교를 찾아 무상급식 배식 현장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초·중등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현이야말로 이 사회를 건강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나가는 척도"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청서 무상급식 청취
경북 상주보 최고회의 주재
4대강 사업 저지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경북 상주의 상주보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데 이어 19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19일 최고위에는 낙동강 사업권 회수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소속의 김두관 경남지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22일 지역위원장 연

석회의 소집, 29일 서울광장에서 야당 및 시민단체 공동으로 열리는 4대강 저지 대회 참석 등의 일정도 잡았다. 손 대표가 야권의 핵심 화두인 4대강과 무상급식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을 놓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므로써 전통적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집토끼'를 확실히 다잡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檢, 국회의원 후원금 수사 전방위 확대

산재의료원 노조 로비·농협 불법 모금 의혹 조사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과 농협의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산재의료원 노동조합의 후원금을 통한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

반대'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은 산재의료원 노동조합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 '통합 반대'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재의료원 노조 조합원 탁모(47)씨 등 5명은 이달 초

'노조 집행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정치인 12명에게 1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는 등 투쟁 기금을 임의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노동조합법,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산재의료원 노조는 고용안전쟁취 투쟁 기금을 모아 지난해 7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7명의 후원 계좌로 10만원씩 나눠 8970만원을 송금했으며

2008년에도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후원금 619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의 불법 후원금 모금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6일 의정부, 동두천, 양주지역의 농협 직원들이 지난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 경위와 전달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3개 지역 농협중앙회 지부와 지역농협에서 2009년 12월 1억원, 2010년 8월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표 "차기 대선후보 2012년 2월 가시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5일 "차기 대통령 후보는 2012년 2월은 돼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진구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 참석, "중심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 보고, 2012년 2월은 돼야 누가 유력하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예를 들며 "지난 10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끝인한 전례가 없다"며 "대한민국은 역동적이어서 지금 여론 조사는 우리 정치상황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러 현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직접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인사와 관련, "최근 대통령의 인사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안 한다"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인사를)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포폰 논란'에 대해서도 "대포폰 의혹이 터졌으면 부끄러워서 내 일이라도 수사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란 사람이 눈감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사를 안 한다고 한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원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